

고흥, 439억 규모 '스마트팜 에너지 혁신사업' 공모 선정

고흥 스마트팜혁신밸리, 에너지 효율 높여 미래농업 실현



고흥스마트팜혁신밸리 전경 사진

/고흥군 제공

고흥군은 고흥스마트팜혁신밸리를 거점으로 추진하는 총사업비 439억 원 규모의 에너지 융합 국책 과제 2건이 공모에 선정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농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 202억 원 규모의 '직류 기반 스마트팜 에너지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국책사업인 '2029년까지 총사업비 237억 원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기반 탄소배출 제로 인공지능(AI) 스마트팜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직류 기반 스마트팜 에너지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은 태양광과 ESS의 직류 전력을 교류 변환 없이 직접 활용해 에너지 손실을 줄이는 고효율 에너지 순환 모델 구축 사업이다.

/강중수 기자

보성,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25만 원 18일부터 지급

보성군은 오는 18일부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민 생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지원금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가운데 가구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 정보와 건강보험 정보를 연계해 선정했으며, 2026년 3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가구원 수별·가입 유형별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2025년 재산세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가구 구성원 전원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중수 기자

해남 디지털온누리 환급행사, 지역경제 활력

해남군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손잡고 진행중인 '2026년 디지털 온누리환급행사'가 예상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행사를 시작한 지난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해남군 관내에서 집계된 디지털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은 약 1억 2,419만원에 달한다.

기간 중 환급 대상자는 1,516명, 추정환급액은 약 2,351만원으로 파악된다. 이는 당초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로, 평상시 사용액과 비교해 약 4배 가량 급증한 수치다. 이는 5월 가정의 달 연휴와 최대 27%에 달하는 파격적인 환급 혜택이 맞물리며 초기 집객 효과가 극대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 상인들도 이번 행사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반기고 있다. 해남을 한 상인은 "행사 이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매출이 살아나는 게 체감된다"고 말했다. /윤보현 기자

2026 진도아리랑배 전국 당구대회 진도서 개최...

장흥,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안전장비 지원

완도군, WWF·WB 방문 '해조류 양식 기술 벤치마킹'

전남 진도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는 '2026 진도아리랑배 전국 당구대회'가 전국 당구 팬들의 관심 속에 열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2일 개막한 이번 대회는 17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대한당구연맹 랭킹포인트 레벨2 대회로 격상되면서 명실상부한 전국 규모 대회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약 1,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전문선수부와 생활체육선수부 경기가 함께 펼쳐지고 있다. 특히 아시아 3쿠션 정상에 오른 김행지(진도군청)를 비롯해 조명우, 허정환, 최완영, 국내 5연속 우승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박세정 등 국내 최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해 수준 높은 경기를 선보이고 있다. 경기는 전문선수부 남자 3쿠션, 남자 1쿠션, 여자 3쿠션, 3쿠션 복식 등 4개 종목과 생활체육선수부 경기로 구성됐다. /이가영 기자

장흥군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총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방탄복과 LED 안전조끼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장비 지원은 지난해 전국에서 멧돼지로 오인해 동료를 사격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피해방지단원의 안전 확보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군은 관련 예산을 확보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 36명을 대상으로 방탄복 7벌과 야간 식별이 가능한 LED 안전조끼 36벌을 구입·배부했다.

특히 LED 안전조끼는 야간 포획 활동 시 단원 간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오인 사격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방탄복 역시 돌발 상황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장비로 활용된다.

/백두연 기자



완도 해조류 양식장 방문 사진

/완도군 홍보실 제공

완도 해조류가 미래 먹거리이자 해양 생태계가 저장하는 탄소를 의미하는 '블루카본'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국제 환경 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과 국제 연합(UN) 산하 금융기관인 세계은행(WB) 관계자들이 완도를 방문했다.

특히 세계자연기금(WWF)은 지난 2023년과 2025년, 세계은행도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세 번째 완도를 찾았다.

이번 방문은 세계자연기금과 인천대학교가 추진 중인 해조류 양식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완도군의 해조류 양식·가공 시설과 해양바이오산업 기관 견학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해양산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단은 세계자연기금 관계자를 비롯해 미국, 영국, 캐나다 등 해조류 산업 및 공공기관 관계자 등 27

명으로 구성됐다.

12일 오전, 신우철 완도군수는 방문단을 대상으로 완도 해조류산업 현황과 비전에 대해 강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해조류산업 가치와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해양바이오분부를 비롯해 전복, 다시마, 톨 양식장과 해조류 종자 배양·가공 업체 등을 찾아 완도 해조류산업의 전반을 파악했다.

13일 마지막 일정으로 완도군, 전라남도 해양수산 연구 기관 및 해조류 가공 업체 관계자, 양식 종사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방문단이 현장 방문 시 궁금했던 점들을 푸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13일에는 세계은행(WB) 관계자와 페루, 칠레, 에콰도르 등 남미 국가 공무원들을 포함한 14명이 완도의 전복, 김 양식장 현장과 해조류 가공 시설을 둘러봤다. /이문수 기자

